

전일동향

전일대비 4.50원 하락한 1,477.50원에 마감

22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473.40(15:30 기준) 7.80원 상승한 1,481.20(06:00 기준)에 개장했다. 환율은 중동 분쟁 고조에 따른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에 연동해 상승하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상승폭을 제한하며 전일대비 4.50원 하락한 1,477.50원에 증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8.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5.03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81.20	1484.30	1476.30	1477.50	1480.90
	엔화	903.09	909.62	903.08	905.03	-
	유로화	1688.36	1692.94	1679.59	1684.86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7	-2.49	-6.78	-14.22
	결제환율(수입)	-0.12	-1.5	-4.66	-10.8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韓 펀더멘털 개선에...1,47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7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80.10, 15:30 기준) 대비 2.90 하락한 1,476.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털 속 수급 여건 개선과 외인 자금 유입에 제한적 하락 전망한다. 금일 아침 발표된 한국 2026년 2분기 실질 GDP가 전기대비 0.6%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0.4%)를 상회했고, 국내 총소득(GDI) 역시 15.6% 증가하며 1분기 수치(12%)를 큰폭으로 상회하며 반도체 주도 성장과 총소득의 증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 등이 확인됐다. 이는 원화 가치를 지지하며 금일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간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양호한 실적과 설비투자 확대 소식에 AI 수익성과 향후 투자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금일 국내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이어질 경우 환율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 여기에 환율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업체가 서울 한시에서 연쇄적인 추격 매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다만, 중동 교전이 지속되며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경계감은 환율 하락 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71.50 ~ 1483.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6210.8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90원 ↓
	■ 美 다우지수 : 52218.58, -6.06p(-0.0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224.0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074 억원